



# 꿈바당편지

## 책으로 한 나라의 상당 부분을 다닐 수 있다. - 앤드루 랭

그날은 살짝 봄 안개가 낀 날이었고 머리카락이 살랑거릴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오후 출근이라 여유가 있어 꿈바당 정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있었던 참이었지요. 7세 정도의 아이가 금방 떨어진 목련꽃잎 하나를 주며 이야기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이 꽃잎은 도서관을 여행하고 싶어서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진 꽃잎 한 장도 예쁘고 귀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과, 마음을 녹이는 당찬 표현력, 그리고 귀한 물건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열린 마음, 그 어린 친구에게 전 그만 반하고 말았지요. 그날, 목련꽃잎 한 장은 책상에서 줄곧 아름다운 봄의 향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니, 제가 맡은 것은 봄의 향기보다도 더 짙은 사랑의 향기였던 것 같습니다. 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 저는 이런 호사를 자주 누립니다. 자연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고 물론 책을 만나지요.

목련꽃은 그날, 정말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떨어졌을까요?

황당한 질문이지만 저는 꽤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꿈바당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생겨난 물음에 충분한 답을 알려주기도 했었네요.

이처럼 꿈바당은 수시로 질문도 던지지만, 무엇을 간직하고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종종 전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때론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이곳에서 발자국 수를 늘리는 만큼, 한 권 한 권 읽은 책의 양만큼 사색의 힘과 마음의 온도를 높여 주기도 하였지요.

세상은 분명 많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 있어주는 친구와 마음 한 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말 한마디처럼 말이지요. 꿈바당에서 그것은 곧 책과 연결이 됩니다.

앤드루 랭의 말처럼, 혹은 그날 만났던 그 아이의 생각처럼,

꿈바당에서는 이미 책을 통해 매일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 어떤 질문에 선뜻 대답이 떠오르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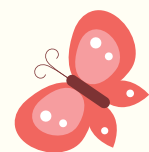
그럴 때는 꿈바당을 방문해 보세요.

그 누구든 종이책과 사람책, 그리고 자연책이 주는 오묘한 조화로움에 금방 반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멀리 더 깊이, 매일 매일 반복되는 여행 속에 충분한 해답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월, 철쭉이 만발한 꿈바당에서



# 꿈바당책장

서평

## 까마귀 소년



책 제목: 까마귀 소년  
저자: 아시마타로, 역자: 윤구병  
출판사: 비룡소  
청구기호: 유아 833-아58ㄷ

한 공익광고가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과학자를 장래희망으로 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과학자를 꿈으로 지닌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예인을 동경하는 아이들만 많아졌다면서 과학자를 장래희망으로 한 아이들이 다시 많아지기를 바라는 공익광고였습니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광고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자를 꿈꾸던 그 많은 아이들은 왜 대부분 과학자가 되지 못했을까. 장래희망은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장래희망대로 꿈을 이룬 사람들도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소녀들은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자나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A/S 센터에서 수리 기사로 일하는 사람도 과학자이고, 시를 쓰는 사람도 과학자입니다.

아시마타로의 그림책 『까마귀 소년』은 결말 부분이 보통 예상을 빚아줍니다. 까마귀 소리를 잘 내던 소년은 담임선생님과 학생들로부터 기대를 받았지만 평범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기대에 어긋난 결말이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결말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까마귀 소년』에는 외톨이 소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외톨이이기에 자연을 벗어나 자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됩니다. 과학자가 외로운 연구를 감수하듯 외롭게 혼자 자랍니다. 세상 모든 생물들은 이 세상에 온 몫을 펼치고 갑니다. 특히 외톨이여서 혼자 까마귀 울음까지 다양하게 터득을 하는 것에서 어떤 예술의 경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네나 굴뚝이 들려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소년. 아이들은 그런 소년을 보며 '땅꼬마'라며 놀리지만 새로 부임한 이소베 선생님께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차차 소년은 아이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치는 결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외톨이 까마귀 소년이 나중엔 크게 성공하는 드라마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까마귀 소년은 훗날 그저 솥을 굽는 사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만을 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시절의 장래희망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의 과학자, 의사,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라도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이 지구에서 인간 또한 기쁜 생명의 유기체로서 순환하게 되는 거라고 작가는 솥 굽는 소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은실의 동화 『까마귀 소년』에 보면 너무 가난해서 집에 만국기에 대한 책이 한 권 있었는데, 다른 책이 없어서 그 책만 읽다가 나중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도를 외워버린 소년이 등장합니다. 쓸쓸한 특기가 생긴 것이지만 그러한 집중력은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밴드 언니네 이발관의 리더 이석원은 노래 가장 보통의 존재를 불렀고 『보통의 존재』라는 산문집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석원은 보통의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다수의 의미를 말합니다. 학교에서 보통의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꿈을 꾸라고만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연예인을 꿈꾸는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연예인이 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진면목을 알아본 이소베 선생님의 안목을 높이 사야 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윤구병 선생은 농부 철학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정년이 보장된 교수직을 내려놓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까마귀 소년이 솥을 굽듯이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할 수 없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의미를 알아보고 번역한 윤구병 선생의 안목이 바로 이소베 선생님의 시선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 솥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현택훈(시인)  
시집 「지구 레코드」, 「남방큰돌고래」 발간.  
제1회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  
traceag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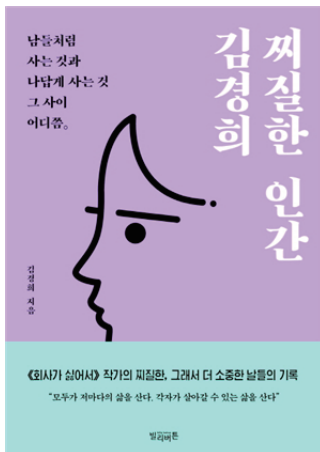
어제 읽은 책 ①  
얼음 땡!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망까지, 말타기 놀다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골목에서 손발이 새카맣게 되도록, 해가 다 저물어 내 새까만 손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친구들과  
놀며 자랐어요. 고무줄놀이, 땡 따먹기... 그 중에서도 얼음땡 놀이는 매일 빠질 수 없는 가장 인기 있는  
놀이였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규원이, 달리기 빠른 날쌘돌이 준석이, 키크고 용감한 주영이, 덩치크고  
힘센 민철이.....,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친구들이 저에게도 있었지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책 『얼음 땡!』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며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잠깐 울컥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작가도 아빠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소개했지요. 거창한 연기도,  
그럴듯한 설명도 필요 없이 아빠의 목소리로 조용히 읽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어린 시절로  
떠나 있는 나를 찾게 될 거예요. 보물 같던 그때로 말입니다.  
각두기는 있었지만 왕따는 없었던 그 시절 이야기. 우리는 모두 행복했고 함께 웃고 떠들며 땀뽀했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왕따보다 각두기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작은 배려로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방법ियो.  
아이들과 함께 그때 그 시절로 함께 놀러가 보는 건 어떨까요?  
- 열람실담당 변아영 사사 -

책 제목: 얼음 땡! / 저자: 강풀 / 출판사: 웅진주니어 / 청구기호: 유아813.8-강890

어제 읽은 책 ②  
찌질한 인간 김경희



남들처럼 사는 것과 나답게 사는 그 사이 어디쯤.  
확실함과 불확실함의 경계에서 오늘을 사는 평범한 우리 이야기라며 소개하는 이 책을 권한 것은  
남편이었다. '제목이 찌질한 김경희라니, 내가 찌질하다는 거야 뭐야?' 하며 눈을 흘겼지만 책에 관해서는  
한수 위인 남편을 믿고 읽어보기로 했다.

나는 간신히 초등학교로 바뀌기 전 '국민학교'를 졸업한 기성세대다.  
아이가 셋이고 결혼한 날을 열 번 넘게 기념한(진짜다. 기념한 것 맞다. ㅋㅋ) 아줌마다.  
게다가 삼남매의 맏이로 자리면서 해야 했던 수많은 선택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진학, 취업 등 뒤를 이어  
똑같은 순간의 갈림길에서 있는 동생들을 마주할 때 마다 좀 덜 힘들게, 좀 더 편하게 삶을 꾸려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 '내 말 들어라'는 말을 쉽게 내뱉었다. (이 문장은 토시 하나하나의 마음과 꼭 같아서  
책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그렇게 나는 동생들에게 뺏속깊이 '꼰대'였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창한 의미와 철학을 갖다 붙여 내가 제주로 이주해 온 이유를  
설명하지만, 실은 매일 그들의 걱정을 곱씹으며 내가 잘 할 일인가 고민하고 결국 또 틀렸을지도 모른다면  
불안해한다.  
나는 끊임없이 찌질하고, 매일 지친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육지에 계신 부모님께 가지 않았다.  
화요일이 휴무인 나에게 좋은 기회였지만 이리저리 머릿속 계산기 따위를 두드리다 여비에 식사비까지  
더하니 어휴... 우리 형편에 무리라는 핑계로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 아이들이  
저마다 쓴 편지와 정성들여 만든 카네이션도 받았다. 내리사랑이라더니... 나는 참 바보 같은 결정을 했구나.  
오늘 또 후회를 한다. 시어머니, 내 부모님, 나를 함께 키워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 아이들의 얼굴 한번  
보는 것으로 무엇보다 큰 선물을 받은 표정을 지으실 것을 알지만 가지 않기로 결정한 내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라는 나의 부모님은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도  
길다. 나의 아버지도 그랬다. 자식들은 자신보다 훨씬 오래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 온 부모님은 또 일찍부터  
편찮으시다. 그렇게 평생 쉬지 않고 벌어도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내 아빠는 오늘도, 미안하다는  
나의 말에 매년 오는 날인데 뭘 그려냐 한마디로 나의 죄책감을 덜어주셨다. 사실, 이런 미안함도 오래가질  
못한다는 것이 나의 한계.

책 제목: 찌질한 인간 김경희  
저자: 김경희  
출판사: 빌리버튼  
청구기호: 일반 818 김14ㄷ

어린 시절 나는 이 나이가 되면 우리아빠 근사한 차도 한 대 '뺏아주고', 계절마다 해외여행도 다니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 뽀뽀하지만  
자존감 높은 일상을 살고, 때마다 부모님께 자랑할 만한 목돈을 척척 드리는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바르고 겸손하지만

해야 할 말은 '딱, 딱' 하는 당당함, 높은 구두를 신고 좋은 차를 타며 아이를 낳아도 변함없는 늘씬한 몸매로 많은 이들의 칭찬을 겸손한 미소로 누리고 사는 멋진 여자를 꿈 꾸는 적도 있었다. 지금의 나는... 혹시라도 우리도서관에서 그런 여자를 찾는다면 내가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샤워하면서 중얼 중얼, '그때 이렇게 되받아칠 걸, 그건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줄걸,'하고 후회하는 짜질함의 대명사인 나는 오늘도 '자기합리화'로 나를 위로한다.

그렇지만 혼자 허락되는 이런 시간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래도 꽤 괜찮은 인생인 것도 같다. 지난 십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는 순전히 나의 선택으로 세 '아기'와 한 몸이 되어(하나는 유모차에, 하나는 등에, 또 하나는 배에) 함께 살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매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기분이었고, 잘해보고 싶었지만 전혀 배운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삶에 지쳐 어떤 날에는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지하 오천 킬로미터쯤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고 어린이집에 머물면서 오로지 나를 보는 시간도 생기고, (운이 좋게도) 다시 일을 시작해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도 왔다. 몇 년 전만해도 결코 오지 않았을 거라 믿었던 시간이다.

<짜질한 인간 김경희>의 작가 김경희는 미혼이고(작가는 언젠가는 결혼을 꿈꾼다고 했음을 빌어 비혼 아닌 미혼으로 표현한다), 나보다 꽤 어렵다. 그럼에도 훨씬(?) 오래 산 나에게, 작가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으로 큰 위로를 준다. 짧은 챗터들마다의 마지막 문장은 모두 오랜 비염으로 감동적인 순간엔 어김없이 눈물보다 콧물이 먼저 차는 나의 코를 가득 차게 한다. 한 시간 반 만에 후루룩 읽어버린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맞아, 하며 무릎을 친 것이 여러 번이다. 작가는 자신의 짜질함을 담담하게 써냄으로써 나의 짜질함을 위로했고 마음 터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와 한바탕 실컷 수다를 떨고 난 후의 개운함 같은 것을 얻었다.

모아둔 돈도 없고 물려받을 유산도 없지만 나와 가족의 행복이 곧 재산이라 다짐하며 즐거운 순간을 쌓아가려는 욕심도 내며 살고 있다. 나는 도대체 이유를 찾지 못하는 많은 내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죄책감들을 조금씩 덜어내며 그래도 노력하고 있음을 칭찬하는 중이고, 그것이 나의 자존감으로 쌓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 많던 친구들은 모두 연락처에만 남고, 프로필 등으로 근황을 훑쳐보며 잘 살고 있구나 짐작할 뿐이지만,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삶을 멋대로 상상하며 나의 삶에 빗대어 쓸데없는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 때라도 전화 걸어 나의 짜질함을 푹푹처럼 쏟아내고 나서도 부끄럽지 않을, 별거벗은 듯 울어내고 나서도 근사한 옷으로 나를 입고 차려줄 친구가 하나 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나는.. 무려 제주에 산다.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가끔 연락하는 인연들에게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못사는지 묻곤 하지만 작가의 말처럼 오늘은(소심하니까 전화 말고 문자로,,, 깨톡은 읽음과 읽지 않음이 티가 나니까 그것도 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인지. 오늘은 괜찮았는지.

나는 때때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노라고. 힘을 내지 않아도 괜찮지만 나도 당신과 같이 마음이 쿵 떨어지는 순간이 자주 있다고. 그렇지만 잘 살아보자고.

오늘,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요?'

- 열람실담담 변아영 사사 -



# 도서 전시 소식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매달 다른 주제로 함께 읽고 싶은 책들을 골라 전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관 기념 [모두를 위한 그림책]을 시작으로 2018년 신년 특별 전시와 3월 [나무,봄], 4월 [평화 그리고 제주] 전시가 열렸습니다.



2018년 신년특별전시 [세계 언어로 보는 어린왕자]전은 31개 나라, 27개의 언어로 각각 번역된 '어린왕자'들을 한 곳에 모은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어린왕자를 읽으며 많은 꿈을 꾸었던 어른들과 어린이들에게 모두 특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시된 모든 언어의 어린왕자 제목 중 원하는 언어를 따라 쓰고 멋지게 꾸며 자신만의 특별한 책갈피를 만들어보는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많은 이용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3월에는 [나무,봄]이라는 주제로 저마다의 나무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선정하여 전시하였습니다. 책에서 눈을 들어 봄을 맞아 온갖 꽃을 피우며 꿈바당 마당을 가득 채운 나무들을 직접 만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꿈자람 책방 서가이 곳저 곳에 전시하였습니다.

## 4월

4월에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가올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평화 그리고 제주] 라는 주제로 평화와 인권, 그리고 제주 4.3을 주제로 한 책들을 선정하여 특별 서가에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의 어린이가 평화를 말해보라는 제목으로, 도서관 주간동안 전시된 책을 읽으며 각자의 마음속에 새긴 평화의 메시지를 희고 붉은 동백꽃잎 메모지에 담아 제주도 지도에 붙이며 다시 한번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달에는 꽃과 곤충을 주제로 한 책들 중에서 나누고픈 이야기들을 골라 꿈자람 책방 서가 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꽃과 곤충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 꿈바당 프로그램

개관식

2017년 10월 14일,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옛도지사관사가어린이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도민 모두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제주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는 자연과 책이 매개가 되어 함께 꿈을 키우는 공간, 상상력이 물결치는 공간이 될 것이고 지역민들에게는 심과 소통의 '사랑방'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역할, 많은 분들의 바람과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꿈바당의 설레는 여정이 기대됩니다^^



크리스마스

아주 특별한 책 배달



꿈바당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가족들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선물!

크리스마스과 관련된 그림책을 종이인형으로 표현하고 눈사람을 클레이로 만들어본 '책 속에서 나온 산타!'

가족과 함께 각자의 크리스마스 소망을 이야기해보는 '내가 만드는 크리스마스!'

눈으로 읽기, 귀로 읽기, 마음으로 읽기, 생각으로 읽기 등 책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공연예술을 통한 책임기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그림책과 함께하는 샌드아트니코의 크리스마스!'

자신의 소망이 담긴 작품을 들고 돌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은 한없이 온화하고 행복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겨울캠프

### 도서관에서 1박 2일



2018년 2월 7일, 8일 양일에 걸쳐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1박 2일> 겨울캠프가 열렸습니다. '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초등학생 40여명이 참여하였고, 도서관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이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서관 추적놀이'를 통해 도서관 청구기호를 익히며 도서관과 친해졌고,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전래놀이' 체험에서는 잊혀져가는 우리의 놀이를 재해석하고 놀이를 통해 소통과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왕국이 된 도서관 정원에서 함께 눈을 굴리고 밧줄을 타는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배려와 협동을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밤늦도록 이어진 '두더지 독서'는 평소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책을 읽은 경험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헤드랜턴을 이용해 책을 읽고, 책 옆에서 잠이 드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 읽는 소리로 가득한 도서관은 정지된 도서관이 아닌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아이들은 상상력을 키우며 각자의 하늘에 별 하나씩 높이 띄웠습니다.



## 어린이날

### 문 열어라 꽃아, 날아라 나비야

'꽃과 곤충'을 주제로 '거미줄 놀이', '자연을 노래하는 액션페인팅', '책 밖으로 나온 주인공', '팡팡놀이터', '햇님밧줄 놀이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학을 기반으로 놀이, 미술, 몸짓 등이 결합된 융·복합 프로그램으로써 어린이들이 통섭적인 사고를 기르고 질문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준비했습니다.

넓은 도서관 정원은 신나는 놀이터가 되었고 도서관의 마당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스케치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찬 꿈비당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5월의 프로그램



## '생각이 팡팡! 글쓰기가 쓱쓱! \_년 기적이야 3 / 하늘을 나는 코끼리'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깨우쳐 갑니다. 첫 주에 연필조차 들지 않으려 하던 한 친구가 지금은 시인이 되어갑니다.

하루하루 생각이 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일.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 '민오름, 다시 또 봄 3'

종이책을 잠시 덮고 자연책을 만나러 나서는 길.

꽃이, 하늘이, 나무가 온 가족을 반깁니다. 가족간 사랑도 함께 피어납니다 ^^

## '어린이 동화구연가가 들려주는 책 읽어주세요'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서로에게 배움이 싹트는 시간.

구 분	프로그램 명	일 시	장소 및 횟수	대상 및 인원	초빙강사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생각이 팡팡! 글쓰기가 쓱쓱!> _년 기적이야 3	5/4, 11, 18, 25 (금) 16:00~18:00	프로그램실 (4회)	초등 1~2학년 20명	신미경 김진주
	<생각이 팡팡! 글쓰기가 쓱쓱!> _하늘을 나는 코끼리(象) 3	5/4, 11, 18, 25 (금) 15:00~18:00	프로그램실 (4회)	초등 3-5학년 20명	송임선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	민오름, 다시 또 봄 3	5/26(토) 13:00~16:00	세미나실 민오름 (1회)	7~8 가족 (6세 이상)	최문길 강진숙
소규모 독서모임과 사람책, 나눔활동 프로그램	명사가 읽어주는 그림책	5/12, 26(토) 16:00~16:30	그림책방 (2회)	7~8세 현장접수	
	어린이 동화구연가가 읽어주는 책 읽어주세요!	5/12, 19, 26 (토) 11:00~12:00	그림책방 (3회)	3~6세 현장접수	어린이 동화구연가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 프로그램	놀이와문학의 만남_거미줄 놀이 1	5/5(토) 09:00~13:00	도서관 정원 세미나실 (2회)	2~6학년 20명	유경아 양정금 김영희
	놀이와문학의 만남_거미줄 놀이 2	5/5(토) 09:00~13:00		2~6학년 20명	송임선 현은경 김아현
	미술과 시의 만남 _자연을 노래하는 액션페인팅1	5/5(토) 13:00~17:00	도서관 정원 세미나실 (2회)	2~6학년 20명	유경아 양정금 김영희
	미술과 시의 만남 _자연을 노래하는 액션페인팅2	5/5(토) 13:00~17:00		2~6학년 20명	송임선 현은경 김아현
	책 밖으로 나온 주인공 1	5/5(토) 13:00~16:00	도서관 정원 북카페 (2회)	2~6학년 20명	김진희 홍청희 신미경
	책 밖으로 나온 주인공 2	5/5(토) 16:00~19:00		2~6학년 20명	
가족과 함께하는 세대소통 프로그램	팡팡 놀이터!	5/5(토) 13:00~17:00	도서관 정원 (1회)	가족대상 초등 1-6학년 포함 가족 (현장접수)	강지희 최희은 김아라
	햇님밧줄 놀이터!	5/5(토) 13:00~17:00	도서관 정원 프로그램실 (1회)	2~6학년 20명	최문길 강진숙 전미란

# 도서관과 사람

도서관을 닮은 안우진(10살) 어린이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꿈바당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온 우진이는 인터뷰 제안에 씩씩하고 환한 웃음으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우진이와 나누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즐겁다는 우진이는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으로 '마법축구화'를 꼽았습니다. [마법축구화, 꿈자림책방 859.7-피640]

운동을 좋아하지 않던 주인공이 마법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잘하게 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라며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고 했지요.

우리 도서관의 이번 달 도서 전시와 프로그램 주제는 '꽃과 곤충'입니다. 우진이와 꽃과 곤충에 관한 이야기도 해 보았습니다.

**제주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하 꿈):** 우진이는 좋아하는 곤충이 있나요?

**우진:** 네. 저는 곤충 엄청 좋아해요. 메뚜기, 귀뚜라미, 나비, 벌...

**꿈:** 곤충박사님이구나. 그 중에서도 만약에 우진이가 하루 동안 곤충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곤충으로 변하고 싶어요?

**우진:** (망설임없이) 네. 저는 사마귀요.

**꿈:** 사마귀? 왜 사마귀로 변하고 싶어?

**우진:** 학교에서 과학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사마귀가 엉뚱하대요.

왕사마귀가 차 앞에서 이렇게 섰대요(사마귀 흉내내며) 자기가 차보다 센 줄 알고, 엉뚱해지고 싶어요. 사마귀로 변해서.

**꿈:** 그렇구나. 사마귀로 변신해서 하루 동안 온갖 엉뚱한 일을 하다보면 정말 신나겠다. ^^ 상상만해도 즐거운데? 혹시 우진이는 꽃도 좋아하니?

**우진:** 네. 저는 좋아하는 꽃도 있어요.

**꿈:** 그래? 어떤 꽃을 좋아해?

**우진:** 썩부쟁이요.

**꿈:** 썩부쟁이? 선생님은 썩부쟁이가 어떤 꽃인지 모르는데.. 우진이는 어떻게 알았어요?

**우진:** 도서관에서 하는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썩부쟁이에 관한 이야기와 이름이요.

**꿈:** 그래? 썩부쟁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우진:** 네.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썩부쟁이꽃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꿈:** 들을수록 궁금해지는구나. 다음에 만나면 썩부쟁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선생님이 최근에 [질문상자]라는 책 속에서 나온 질문인데, 우진이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백년 후에도 과연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진:** 네. 살 수 있어요. 지구에 살던 공룡이 다 죽었지만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건 공룡보다도 사람이 더 세다는 뜻인 것 같아요.

**꿈:** 우와... 정말 멋진 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을 백년 후의 지구에 지금은 없는 다른 생물이 생겨날 수도 있을까?

**우진:** 네. 자연이 만들어 낸 다른 생물이 있을 것 같아요. 하얀색 잎이 열리는 나무 같은 것 말이예요.

**꿈:** 정말 예뻐겠다. 눈이 내리지 않아도 온통 하얀 세상이 되겠는걸? 선생님은 생각지도 못한 상상을 해내는구나. 대단하다 우진이.

멋진 우진이는 친구에게도 특별한 사람일 것 같아요. 혹시 우진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일지 말해줄 수 있나요?

**우진:** 네. 도와주는 친구요. 친구가 다쳤을 때 도와주고, 달리기 하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요. 저도 우리 반 친구 지환이가 다쳤을 때 걱정 돼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보건실에도 같이 가 주었어요.

**꿈:** 우진이는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구나. 선생님에게도 우진이가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나이가 똑같은 친구나, 사람 말고도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나 나무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우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진** : 네. 저도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독수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독수리를 길들여서 비행도 사양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꿈** : 우진이는 다른 친구를 돕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독수리도 우진이를 도와주고 싶은 것 같은데... 어때?

**우진** : 네. 독수리는 제가꿈 속에서 날 수 있게 새처럼 나는 법을 알려줄 것 같아요.

**꿈** : 독수리와 꼭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진이랑 독수리가 친구가 되면 선생님에게도 소개해 주세요. ^^ 마지막으로 우진이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진이가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말해줄 수 있니?

**우진** :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가족의 건강.

**꿈** : 우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진이가하고싶은 일이 있을까?

우진 : 네. 있을 것 같아요. 엄마에게 선물을 많이 사주고 싶어요.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리고 우진이에게 릴레이 질문을 넘겨받았습니다. 다음에 인터뷰 할 친구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나중에 되고 싶은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친구에게 꼭 물어보겠다고 약속하며 우진이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할 때 마침 문을 열고 들어오신 엄마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던 따뜻한 우진이의 마음이 전해져,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5월 인터뷰에는 도서관 5월 주제인 꽃과 곤충, 그리고 요슈타인 가아더의 동화책 [질문상자]에 수록된 철학 질문이 포함되었습니다.

# 공감,공간



## 제주의 도서관 설문대어린이도서관

명칭: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관장: 강영미  
주소: 제주 제주시 신대로10길 48-9  
전화: 064-749-0070  
메일: aminee@paran.com  
홈페이지: <http://www.seoli.kr/>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제주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연동 노인회관 2층에 위치한 도서관입니다. 한창 아동도서 붐이 일던 1998년, 제주 최초 사립 작은 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설문대라는 명칭은 제주 전설 '설문대 할망' 설화에서 따왔습니다. '손자·손녀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 같은 도서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강좌 신청일에는 줄을 서 있는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제주바다에 떠 있는 배 모양으로 꾸민 어린이들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곳에서 책을 읽으며 바다보다 큰 꿈을 꾸겠지요. 동그란 창문 너머 계절이 바뀌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아늑한 공간도 있습니다. 현재 그림책에 대한 애정으로 톨툴 뭉친 강영미 관장 이하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설문대의 중심에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내어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공간, 모두가 내 집같이 드나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뚝뚝뚝 걸어가겠습니다.



## 제주의 책방 무명서점

명칭: 무명서점  
대표: 정원경  
주소: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 26 유명제과 2층  
전화: 010-6390-3136  
메일: [untitledbookshop@naver.com](mailto:untitledbookshop@naver.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untitledbookshop/>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p/BYZqxxhgofz/>

무명서점은 제주의 옛 시간을 품은 고산리에서 2017년 10월말 문을 연 동네책방입니다. 고산우체국 사거리 유명제과 2층에 있어요. 네, 그래서 무명서점이 맞습니다. 17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동네빵집에 기대어 가려는 마음이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자유로운 책 읽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이름을 잊었습니다.

'이름 모를 책들의 여행'이라는 모토 아래 모든 책을 시, 사랑, 정치, 자연 4가지 주제로 재배열하고, 새 책이었던 헌책과 헌책이 될 새 책이 공존하는 책방입니다. 책방 운영자의 취향만으로 책을 선정하지 않고, '무규칙 협동 큐레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직접 읽고 추천하는 책을 입고해서 판매합니다. 매일 책방을 찾는 여행자들이 어떤 책을 선택했는지 출고의 흐름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출판 시장이 보여주지 않는 이름 모를 책들, 독자들이 발견해낸 책들이 오늘도 무명서점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 시시콜콜 뉴스

## 꿈낭 이야기



도서관 잔디밭 정원 한 가운데에 크고 멋진 구실잣밤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를 가리키는 제주어인 '낭'을 붙여 자연스럽게 '꿈낭'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꿈자람책방의 창가에 앉아 있으면 동박새, 까마귀, 까치 등 여러 새들이 놀러와 나뭇가지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책에서 눈을 돌려 나무책을 바라보며 평온한 초록의 위안을 얻습니다. 도서관의 책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는 걸까요. 헬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소년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나무가 행복해 졌듯이, 이제는 우리가 나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해질 테니까요.

(※ 나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오실 때에는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가져오세요!)



## 5월 5일은 어린이날!



“새와 같이 꽃과 같이

앵도 같은 어린 입술로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노래,  
그것은 고대로 자연의 소리이며, 고대로 하늘의 소리입니다.”

소파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 잡지를 창간하며 실은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어린이날 전날, 직원 모두는 풍선을 붙여 장식하며 신나게 뛰어 들어올 어린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날 꿈바당 잔디밭에서는 도서관에서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진행되어, 참여한 어린이들 모두 지치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웹진 코너 [꿈바당 프로그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도서관 규칙을 만들었어요

2018년 5월 1일,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의 운영 규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운영 규정은 도서관을 더 멋진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규칙입니다. 학교에도 규칙이 있고, 나라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지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책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 음식을 먹을 때에는 복카페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안전을 위해 반력동물 동반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규정] 전문은 도서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매열매가 열려요

이른 봄. 눈송이처럼 하얀 꽃으로 뒤덮여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매화나무는 5월이 되자 초록 매실을 한가득 맺었습니다. 꽃의 입장에서 매화나무이며, 열매의 입장에서 매실나무입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하얀 꽃이 어느새 초록 열매가 되다니, 기적 같은 일이지만 쉽게 되는 건 아니었겠지요. 꽃이 지고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을 때에도, 열매를 맺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았을 나무의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매화나무 외에도 명자나무가 올 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키가 1미터 정도인 작은키나무인데, 열매는 마치 애기사과처럼 생겼습니다. 꿈바당 정원에는 이처럼 과일나무(유실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살펴보면 이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열릴지 상상해봅니다.

